

## 은혜와 삿(Grace & Wage)



오늘은 은혜와 삿에 대해 공부를 합시다

로마서 4 : 4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삿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로마서 4 : 5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 : 6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바

로마서 4 : 7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로마서 4 : 8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두가지 법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은혜와 삿, 복음과 율법, 은혜와 공로,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이어서 은혜에 의해 선택된 자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는 자력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자와 타력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 먼저 삿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부를 하십시오.

삿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것은 선행으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레위기 18 : 5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범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구약 중간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린 왕중에 안티오쿠스 4 세(B.C. 175-164)라는 시리아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상 유명한 폭군중의 하나입니다.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있어서는 법에 있어서나, 종교에 있어서나, 풍습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칙령을 내렸고, 안식일, 할례, 음식에 대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사형에 다스려 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축제에 참가하도록 강요를 받았고, 율법책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상을 세우고, 하나님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약 350 년전 다니엘이 예언한 바 다니엘 11:31 의 멸망의 가증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 11 : 31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 11 : 32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퀘홀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근처의 산지에 있는 모딘이라는 마을에서 B.C. 167 년에 반란이 일어 났습니다. 모딘에 하스모니안 가의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감독관은 모딘에 와서 왕의 명령에 따르면 살려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이 때 유대인 중의 변절자 한명이 부정한 피로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에 섰습니다. 이것을 보고 분개한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은 그 변절자를 죽이고, 또 왕의 감독관도 죽이고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때 많은 사람이 마따디아를 따라 산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왕은 이들을 죽이려고 군대를 파견하였습니다. 왕의 군대는 이들을 따라 잡은 후 항복하면 살려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회유책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회유에 아랑곳하지 않자, 왕의 군대는 안식일에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자기 방위도 꺼려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라 저항도 못하고, 동굴입구도 막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동굴 안에 있다가 불타 죽었습니다.

이 때 동굴 안에서 질식사하여 숨진 자가 약 1000 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안식일에 싸워 율법을 범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하며 순교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요세푸스 2 권 유대 전쟁사 12 권 6 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의 전쟁기록이 외경 마카비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지기의 목숨조차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

이때 부터 평신도 신앙 운동인 바리새파 신앙 운동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 까지 유대인들의 주류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sup>1</sup>.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때에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고 비난한 것은 바로 이런 전통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로 의를 얻는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 : 5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순수한 율법 준수 행위이며, 그 공로에 의해, 대가인 삿에 의해 ‘살리라’에 도달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4 : 4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삿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한 말의 의미가 됩니다.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 하에서는 율법을 제대로 준수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율법 준수를 위해 순교를 택하는 방법외에 다른 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sup>1</sup>.세계 기독교 대백과사전 바라새파 참조

행위의 의는 공로가 그 기본개념입니다. 여기에는 은혜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인간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서는 은혜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다음에 구약에는 여태까지 말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4 : 7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로마서 4 : 8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은  
한 구절에 해당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준수는 커녕 죽을 죄를 짓고서도, 율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고, 은혜에 의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그 대표자로서는 다윗왕과 므낫세 왕을 예로 들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야를 죽인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으므로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범죄를 한 후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책망을 들은 다윗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2 : 13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한 말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러 다윗왕은 율법에 따르면, 아무리 왕이라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과 일치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32 : 1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 : 3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시편 32 : 4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시편 32 : 5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왕은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왕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진 사람은 므낫세왕입니다. 므낫세왕은 경건한 왕인 히스기야의 아들이지만, 부왕과는 달리 유대 역사상 악한 왕으로 으뜸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왕하 21 장과 대하 33 장에는 므낫세가 지은 죄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나 보십시오.

역대하 33 : 5 또 여호와와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역대하 33 : 6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역대하 33 : 7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율법에 금하는 일은 모두 골라서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야 한 사람만 죽였지만 이 사람은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습니니다.

열왕기하 21 : 16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한 그 죄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런 죄악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는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므낫세를 앗수르 군대에 붙이셨습니다. 므낫세는 쇠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율법에 의하면 살 길이 전혀 없는 죄인이지만 지옥과 같은 감옥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역대하 33 : 12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역대하 33 : 13 기도한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지만,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지 않고, 더 높은 믿음의 법에 의해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고로 죄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회개와 대속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율법 위에 있는 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 : 17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 삼십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 : 아브라함에게 하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리라 한 언약

오늘날 교역자들 중에는 이 역사적 사실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행위를 합리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지도력에 흠을 낼 수 있는 큰 죄를 짓고서도 합리화 합니다.

‘다윗도 범죄하고 회개하니 용서를 받았다. 므낫세도 용서를 받았다. 나도 회개하였으니 다윗이 왕직을 계속한 것 같이, 므낫세가 왕직에 복직된 것 같이 나도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다’ 하면서, 무지한 교인들을 원격조정하여 다른 교회를 시작하던지, 혹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므낫세의 이야기는 회개했으니 왕직을 계속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흐름속에 유유히 흐르는 회개와 용서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는 목사라는 직책에 있는 것이 아닌 목회자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있습니다.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그 말은 금방 권위가 사라져 죽은 교훈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다른 곳으로 흐르는 물을 자기 논으로 끌어들이고 이 물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하는 식입니다. 지도자가 지도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윤리적 신앙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교회가 정해진 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회개의 기간을 가진 후, 교회의 결정에 의해 복권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죄용서를 받았지만 징계를 안받은 것이 아니고, 므낫세는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처리에 의해 코가 꺾어져 포로로 잡혀가는 죽을 고생을 한 것입니다.

다윗과 므낫세의 예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4:7-8 에 있는

로마서 4 : 7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로마서 4 : 8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한 예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율법에 의해서는 사망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은혜에 의해 죄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하박국 2 : 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위에서 구약시에 있었던 믿음의 모습은 점진적 계시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약에서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 :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보내신자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로마서 10 :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것은 속죄 사역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인간이신 중보자 예수님은 원죄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 나시고, 율법을 한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말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전가 받아 죽을시고, 당신이 인성이 가지신 죄없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죄없는 자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신성을 가진 중보자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에 의해 부활하셔서, 삼위일체의 제 2 위 성자 하나님이 가지신 성자 하나님의 의를 위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 의의 전가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흘러 내려온,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의 두 모습, 은혜와 삿에 대한 것입니다.

### 3. 여기서 우리는 은혜와 삿이 주는 구속의 질적 효력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 : 5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히브리서 3 : 6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의 집 : household 라는 말로 그 집 가족이라는 의미

이 구절은 믿음과 행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구속의 질적 효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낱말은 모세와 그리스도, 사환과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모세로 지칭되는 것은 모세 한 개인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 전체를 말합니다. 그의 집이라는 말은 building 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속의 질적 효력에 있어서 두 category 가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 : 22 기록된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갈라디아서 4 : 24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갈라디아서 4 : 29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꺾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 종노릇 할자와 아들노릇을 할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 :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 율법에 속한 자,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 준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종으로 있을 것이지만, 믿음에 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들로 있게 될 것을 말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같은 구속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살리라’ 하는 말은 종의 신분으로 살 것을 말하고,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은 아들의 신분으로 살 것을 말합니다. 종의 신분으로 살것과 ‘아들의 신분으로 영생을 갖고 살 것을 말합니다. 이 차이가 구속의 질적 차이이며, 은혜와 삿에 속한 자의 차이입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아래의 Facebook 의 “Like” Button 을 눌러 주세요. 또는 카페나 블로그나 twitter 에 가서서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만 노력이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서서 로그인을 하세요.